지역 소식통

정읍시보건소, 생물테러 위기 대비 모의훈련 성료

생물테러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정읍시에서 소규모 모의훈련이 진행됐다.

정읍시보건소는 지난 15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2024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정읍아산병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했다.

생물테러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이용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속적인 훈련과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훈련은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생물테러 감염병 종류와 기관별 대응 절차에 대한 이론 교육이 진행된 후, 현장 출동 시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구(Level A, C) 착·탈의와 다중탐지키트 사용법, 검체 이송 방법 실습 등이 이어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 성공 추진

정읍시는 지난 15일 칠보면 행복이음센터에서 농촌지역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열린의사회, 다비치안경 군산점, 아이오바이오 등 전문 의료 인력 10여 명이 참여해 옹동, 칠보, 산내, 산외면의 의료취약계층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에게는 양·한방 진료, 구강검사, 검안 및 돋보기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

특히,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수송 버스를 운영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제2회 ESG 포럼 개최

ESG+N 행정 기반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해법 모색… 군의 ESG 7가지 전략 발표 '큰 호응'

부안군이 부안형 ESG+N 행정에 기반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제2회 부안 ESG 포럼을 지난 18일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개최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군과 월드비전, 포스코이앤씨, (사)글로벌ESG협회가 주관한 이날 포럼은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이원택 국회의원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황인경 글로벌ESG협회 회장 등 군과 부안군의회, 협업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권익현 부안군수의 개회사와 이원택·유동수 국회의원 환영사, 박병래 의장·황인경 회장 축사,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부안군 ESG 7가지 전략 발표, 1~2부 발제 등으로 진행됐다.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부안군 ESG 7가지 전략 발표에서 생활인구 10만명(한평生 부안갯벌 보전 프로젝트), 관광 활성화(바다단풍 블루카본 조성), 청년 인재 유입(부싯돌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젝트), 살고 싶은 부안(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 든든한 부안(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실현), 기본소득 지급(풍력+태양광 기반 좋은 부안 시대), 기업 유치(수소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 RE100 산단) 등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ESG 행정 비전을 밝혀 큰 호응을 얻었다.

김병태 담당관은 발표를 통해 관계인구 연 5000명 확보, 일자리 500개 창출, 협약기관 50개 유치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의 해법을 제시해 큰 박수를 받았다.

부안군이 부안형 ESG+N 행정에 기반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제2회 부안 ESG 포럼을 지난 18일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개최했다.

특히 군은 기업 유치를 위한 새만금 RE100 산단과 관련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에 대한 친환경 국가산업연구단지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새로운 생존조건 ESG와 Resilience'에 대해 발표해 ESG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 발제에서는 이창민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ESG 확산과 국내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 방향(일본 사례를 중심으로)'을, 최남수 서정대 교수가 '지자체 ESG 확산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구축'을, 배호현 NH투자증권 과장이 '지자체와 탄소배출권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정지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실장이 '블루카본 법적 기반 구축과 갯벌의 인증'을, 조현호 포스코이엔씨 사회공헌그룹장이 'ESG 가치를 더한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을, 강용택 월드비전 ESG임팩트프로젝트팀장이 '한평生 부안갯벌 보전 프로젝트'를, 권기효 멘토리 대표가 '부싯돌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권익현 군수는 "우리 사회는 지금 급격한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의 도약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메가 트렌드를 마주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와 인구감소는 우리나라의 미래 그리고 우리 부안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부안군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ESG 행정을 추진해 다가오는 내일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안형 ESG+N 행정은 기업(Enterprise)과 소셜스타트업(Social Startup), 정부·공공기관(Government), 비정부기구(NGO) 등이 공공의 아젠다 위에서 협력하는 컬렉티브 임팩트구조를 만들어 가는 구상이다.

군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행정부처, 소셜스타트업, NGO 등의 연계를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제설 대책 위한 선제 대응체계 구축

내년 3월 15일까지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 추진… 제설대책상황실 운영 등

고창군이 겨울철 제설대책을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내년 3월 15일까지를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9개반 21명의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제설대책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4개 노선 327㎞에 대해 자체 제설장비를 비롯 임차한 덤프트럭 등을 신속히 투입하는 등 읍면지역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제설제, 모래주머니 등을 곳곳에 비치해 폭설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차량 운행시 잡목, 급커브 등으로 햇볕이 들지 않은 구간은 잡목 제거를 추진하였고, 이면 도로와 마을 안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봉사자 트랙터 241대를 운영하여 읍·면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겨울부터는 제설용 덤프 2대를 추가적으로 임차하여 지방도 15호선(석정~해리면 궁산)에 대해 2대의 차량으로 동시에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상습 민원 지역인 명사십리 해안도로에 대해 작업 구간을 추가하였고 도·군경계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적으로 고창읍에 인도형 제설기 4대를 보급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면지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 안길, 골목길, 상가 밀집지역 등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군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사회복지타운 주차장 준공식 개최

총 5억원 예산 투입… 총 75대 차량 수용 가능한 야외 공영주차장

고창군이 지난 18일 고창읍 율계리 사회복지시설지구 내에 '고창군 사회복지타운 주차장'을 조성하고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은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고창군의회 조민규 군의장과 군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조성된 주차장은 약 3,270㎡ 면적에 총 75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공영주차장이다. 특별교부세 3억원과 군비 2억원을 들여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지구는 보건소와 고창군노인요양원, 종합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있다. 추후 복지시설지구내에 장애인 복합문화체육시설인 '고창 반다비 체육센터'와 장애인평생학습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시설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인근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새롭게 조성된 사회복지타운 주차장으로 주변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더욱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준공한 주차장이 시설의 접근성을 높여줘 활용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도시공업지역, 2040년 준비한다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정읍시가 공업지역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신태인읍 행정문화센터(3층 대회의실)에서 '2040년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신태인읍 우령리 및 연정리, 태인면 오봉리, 입암면 천원리 일원의 총 4개소 (준)공업지역으로, 면적은 약 44만 3233㎡이다. 기본계획에는 공업지역별 관리유형 결정과 관리방안, 건축물 권장용도 및 밀도 계획, 기반시설 지원등이 포함된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최종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천-정읍역, 야간경관 조성 본격화

정읍시가 정읍천과 정읍역의 야간경관 조성을 본격화하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빛의 공간 조성에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정읍천 야간경관 기본계획 현장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연지교에서 상동교까지 약 3.4km 구간에 걸쳐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정주교를 포함한 7개 교량에 각각 테마별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정읍역과 정읍천 주변 공간에 다양한 야간 볼거리와 경관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관광과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권역별 야간경관 기본계획, 교량별 테마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11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한 뒤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정주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연차적 추진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